

# 간병인 구하기 어렵고 비싸...간병에 온전한 생활 못해

## 간병에 짓눌린 가족들 <상>가족의 '독박 간병' 언제까지

가족이 아프다. 누군가는 병시중을 들어야 한다.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 간병인은 필수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회사 생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허다하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구하기도 힘들다. 간병하고 돈 빌려라 다니고 대출을 알아보다 금세 일상이 무너진다. 부모가 쓰러지면 젊은 청년들이 간병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고령화로 병시중 들 가족도 적는데, 정부는 개인의 영역이라며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아픈 환자, 보호하는 가족, 모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터운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것, 사회와 국가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간병에 짓눌린 가족'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두 차례로 나눠 실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고령환자를 둔 가족들이 '간병'에 짓눌리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간병인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는데, 기껏 구하더라도 하루 간병비로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간병하는 가족이 젊은 청년이라면 병원비·간병비를 대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담당 할 일을 찾아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간병 기간, 정상으로 회복되기는 커녕,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참아내야 한다.

2000년, 각각 11.9%와 5.6%에 불과했던 전남과 광주지역 고령화율은 2021년 현재 24.2%, 14.7%에 이르렀다.

고령화 가속화로 중증·고령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간병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 갑) 의원은 지난 2018년 기준, 유급 간병을 원하는 환자의 수가 417만 3000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었다.

고령화가 가속화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지만 간병인 수급조차 여의치 않다.

국내 간병 종사자 수도 10만명으로 추산할 뿐 정확한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조건과 관련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근거 법규도, 관리감독기관도

## 고령화 가속화로 중증환자 증가 간병인 처우 법규·기관도 없어 코로나로 조선족 입국 못해 심각 웃돈 주고도 구하지 못해 발 동동 핵가족시대 국가 폭넓은 지원을

없다. 여기에 10만 명 간병 종사자의 70%를 차지했던 조선족(중국동포)들이 코로나19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더이상 출국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웃돈을 주고도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환자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9년 71만 9269명이었던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숫자는 지난해만 66만 2845명으로 8%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병상에 누운 가족이 있으면 환자 가족들의 일상은 금세 무너져 내린다.

A(여·58)씨는 올 초 월급 20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 판매사원 직을 그만뒀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고관절이 부러져 입원하면서 간병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엔 하루 일당 13만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웃돈을 줘야하거나 요구 조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5년 간 다니던 마트를 그만두고 10개월째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른 고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경우 정상으로 복귀는커녕 더 악화하지 않기만 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은 깊어진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도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줄인 보호자는 33%에 달했다.

전문 간병인들도 찾기 어렵다. 현재 간병인은 별다른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자 가족들이 필요할 때 계약해 운영하다가도 금세 입장이 다르다며 그만두는 등 책임감도 높지 않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두고 간병을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40대 여성 B씨는 지난 주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했지만 상태가 악화된 어머니를 두고 간병인이 사라졌다. 병원측 연락을 받았다. 사라진 간병인과는 도무

지 연락이 닿질 않았다.

B씨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져 물으려고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간병인을 알아봐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은 꾸준히 올라온다.

뇌경색과 당뇨, 파킨슨을 앓고있는 87세 노모를 뒀다는 청원인은 "요양보호사는 제 역할을 못하고, 상주간병서비스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하루 12만원에서 16만원이 뉘집 강아지 이름이랍니까? 간병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핵가족시대, 1인가구 증가 시대에 가족이 간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병 문제로 인한 가정의 파탄과 불행은 결국 간병이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간병인들 역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24시간 근로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만큼, 간병을 제도화 시켜 환자와 간병인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대리잡기 쉬워지고 택시잡기 어려워져

### 택시기사 코로나로 영업 어려워 대리 기사·배달 업계 등 옮겨가

"어? 웃돈 안줘도 대리기사 바로 잡혔네..."

A씨는 밤 늦은시간에도 대리운전 호출이 쉬워져 술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술자리를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대리기사 호출은 식당·술집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밤 10시 섯다운' 보다 한결 나아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대리 기사를 부를 때마다 '더블' 요금을 내는 일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영업을 어려워진 택시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고 대리기사나 배달·택배 운전 등으로 옮겨간 게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광주지역에서 364대(개인 9대, 법인 355대)의 택시가 휴업 신고를 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년 간 52대(개인 9대, 법인 43대)에 불과했던 택시 휴업 신고는 지난해만 574대(개인 12대, 법인 562대)로 늘더니 올 들어서 상반기에만 300대 넘는 택시가 멈췄다.

택시 기사도 그만쯤 줄었다. 광주시는 법인 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이 2600여명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2900여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법인택시 기사를 그만둔 김씨는 "코로나 나로 힘들어 택시기사 그만두고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면서 "법인택시를 그만둔 기사들은 최소 30%수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택시기사들은 코로나로 '회사 사납금'을 맞출 수 없는 점을 택시 운전을 그만두는 이유로 꼽고 있다. 김씨는 "매일 택시를 몰면(전일제) 19만4000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했다. 한 달 25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내는 돈, 이른바 '사납금'이 485만원이다. 사납금을 모두 내면 월 급여로 19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년간 190만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저녁 근무의 경우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문을 닫으니 손님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대리기사 호출은 쉬워진 반면,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는 어려워졌다. 개인택시도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줄이고 운행을 자제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안운택 전국 민주택시 광주지역 분부장은 "현재 광주지역 법인택시 가동률은 45%정도 수준"이라며 "대리나 배달로 넘어간 기사들이 수입이 더 좋기 때문에 택시로 다시 넘어올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주차장 외벽 광 15일 오전 11시 30분께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광주시 남구청 지하주차장 출구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보조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남부소방 제공>

## 윤장현 전 시장 조카와 함께 사기친 조폭 실행

### 불법 '보도방' 운영 관여

### '신양OB파' 조직원 징역 8개월

불법 '보도방' 업계 운영에 관여하거나 협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이 조직폭력배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조카를 '윤 전 시장 아들'이라고 거짓 소개하고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신양OB파' 조직원 A(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상무지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보도방 업주들을 유흥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차 안에 머물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생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도록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무지구 유흥업소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불법 보도방 등을 운영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불법 보도방 운영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